전략

김장열의 '요것만'

리서치센터장 김장열

미국장 폭락, 오늘 (10/29) 코스피 2300~2600선 사수 여부가 중요 포인트



<코로나 코로나 확산공포... 트럼프-바이든 격차 축소로 대선 불확실성까지>

10월 28일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각국의 봉쇄 조치 강화에 대한 공포로 3대지수 모두 3.5% 내외 급락했다. 코로나19 재확산 가속하면서 시카고가 식당의 실내 영업을 금지키로 하는 등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지역이 나오고,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 등 핵심 국가들도 전국적인 차원의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.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합주 중심 지지율 격차 축소 소식등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 부양책이 어차피 지연되면서 다음주로 다가온 선거 막판까지 가보자는 심리가 지배적인 듯.

<IT/유가 관련 하라락 폭 키워>
섹터별로는 전 업종 하락한 가운데 IT, 유가 관련 업종이 약세. 페이스북(-5.51%), 구글(알파벳, -5.51%), 트위터(-5.36%) 등은 미국 상원 청문회 출석 설전을 벌인 것도 빌미로 작용 . WTI는 6% 가까이 급락,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수요위축 우려와 주간 원유재고가 7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점이 요인이었다.

* S&P500 섹터별
자유소비재: (-3.36%)
필수소비재: (-2.92%)
에너지: (-4.22%)
금융: (-2.47%)
헬스케어: (-3.23%)
산업재: (-3.31%)
IT: (-4.33%)
커뮤니케이션: (-4.03%)
소재: (-2.87%)
유틸리티: (-2.94%)

<하지만 미국장 오른 종목도 있다. 태양광, SW, 플랫폼 종목 등 일부에서는>

나스닥 시총 TOP 300개 종목중 시장 Outperform한 주요 10개 종목은 (시총순) 다음과 같다.

넷플릭스 -0.55%, 오토매틱 데이터프로세싱 (인적자본관리 솔루션) +6.2%, 이베이 -0.56%, 펠로톤인터랙팁브 Class A (Fitness platform) +0.8%, 아이치이 ADR (중국 비디오 콘텐츠 플랫폼) +2.59%, 리봉고헬스 (만성질환환지 맞춤형 플랫폼 솔루션) +1.76%, 솔라에지테크놀로지스 (태양광 광전지 시스템용 인버터 공급) +0.76%, 퍼스트솔라 (태양광 모듈 공급) +13.2%, 다다 넥서스 ADR (주문형 소매 & 배달 플랫폼 관련 중국계 지주회사) +2.08%, 선런 (주거용 태양광 시스템 설계, 설치, 관리) +2.16%.

<한국장 2300~2260 이내이고 미국 29일장 추가 폭락 없다면...다시 회복으로 가능>

한국장도 미국과 비슷한 character 종목군은 상대적 outperform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. 지난 9월 3일 미국장이 3.5% (S&P500) 하락한 이래 처음으로 3%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. 하지만, 9월 4일 코스피는 1.15% 하락에 그쳤다. 4월 21일 미국 장이 3.07% 하락했을때 한국은 다음날 1.34% 하락에 그쳤다. 물론 그때 보다 지금은 임박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더 부정적이긴 하다.
따라서,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오늘 2300선을 지키면 매우 선방하는 것이고
2260선을 하회하지만 않으면 일부 긍정적 섹터의 저가 매수 세력과 미국 선물시장 흐름에 따라 분위기는 악화일로로만 흐르지는 않을 수 있다.

재봉쇄 공포에 美증시 '패닉'...3%대 급락
https://m.stock.naver.com/news/read.nhn?category=mainnews&officeId=008&articleId=000449157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김장열)

연락처: 02-3779-3513 / Email: jay.kim1007@gmail.com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 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 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(비중확대)			
		Neutral (중립)			
		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투자등급 4 단계	Buy (매수)	+15% 이상	51.1%	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 (최근 1 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
		Hold (보유)	-15% ~+15%	1.9%	
		Sell (매도)	-15% 이하 기대	0.0%	
		Not Rated(투자의견없음)	등급보류	47.0%	
		합계		100.0%	